

섭리 2세 교육

작성일 : 2013. 9. 3(화) AM 03:00

작성자 : 정별해

(성자께서 예전부터 섭리 2세들
교육 잘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자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 성자의 말씀 *

섭리 2세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한 나라도 2세가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 사상과 수준이 결정된다.
섭리세계도 한 나라이니
2세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섭리가 결정되고
선생이 육으로 역사를 끝낸
2차 섭리역사 때
섭리의 수준이 좌우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혈통과 조건을 보시고 역사하셨다.
다윗은 다윗의 혈통
선지자는 선지자의 혈통이었다.
우주 전 역사를 통틀어 세계를 통틀어
가장 좋은 혈통을 가진 자들이
섭리 2세이니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지고
쓰임이 달라질 것이다.
섭리 2차 역사 때
불러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섭리 2세들은 그 뿌리부터
선생과 함께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섭리의 교육은 누가 하느냐.
부모들이 한다고 착각 말라.
나 성자가 직접 하고
선생이 교육한다.
그러니 부모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하고
역사가 맞아야 한다.
또 자신의 아이에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는지 깨달아
방향을 알아야 한다.
그 뜻에 맞게
교육은 성자가 하고
선생 통해 하늘이 한다.

어렸을 때부터
맞춤식 교육을 받은 자들은
세계적인 유명 국가대표가 되기도 하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키워진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 섭리 2세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을 놓고
중점적으로 기도하여라.
나 성자의 뜻과 방향에 맞게 교육받을 수 있게
아이의 재능과 소질에 따라
뜻이 있다면
나 성자의 방법대로 교육받아
잘 크도록 기도하라.
기도할 때
너희의 육성 버리고 기도해야 된다.
부모의 심정과 관심, 사랑을
왜 모르겠느냐.
그러나 과하면
아이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된다.
하늘이 정한 대로
성약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기도 잘못 받고 교육 잘못 받으면
클 자가 못 커
정해진바 그 위치를 뺏기게 된다.

섭리 2세
교육 세밀히 해야 된다.
요즘 아이들이니 조금 봐 주어서
세상 것도 알게 하고
섭리의 것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섭리 안에 세상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다스리는 세계가

섭리라는 것을 알려 줘야 한다.
근본인 섭리 변두리에
세상이 있는 것이다.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축복 받은 자는 지구 안에서
하나님의 근본 된
주관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줘라.
넓은 사고와 사상으로 이해시켜 주되
세상의 것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뇌가 단단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에
보고 듣는 대로 스펀지처럼 흡수된다.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된 양이 많은 쪽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만큼
나 성자와 섭리의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아이가 판단 능력을 가질 나이가 되면
사상을 정확히 심어 줘야 한다.
온 세계는 사상싸움이다.
철학에서는 끝난 줄 알았던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전쟁을 하고 서로를 배척한다.
섭리 2세는
세상의 ‘한 사상’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섭리 혈통의 자손인 만큼 다윗처럼
오직 ‘주의 사상’만이 존재해야 한다.
사상은 주입되고
듣고 보고 접하는 것으로
자신이 생각하여
정착되면 생기는 것이니
말씀을 많이 읽혀라.
소리 내서 읽게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뇌가 기억할 수 있도록
뇌 활동을 시켜 주어라.
그래야 어렸을 때부터 접하던 것이 커가면서
사상으로 자리 잡는다.
섭리 사상이 있는 자가 크게 쓰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인다.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은 필수다.
새벽기도는 힘들지만
정한 기도 시간을 가져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게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것을 새벽기도로 보고
정한 기도 시간과 기간을
꼭 가져야 한다.
너희가 기도 안 하면
육적으로 흘러가듯
하늘의 사람인 아이도
기도 안 하면
육극에서 살게 된다.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니
아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코앞에서
그 기도 듣고 계신다.
때를 정하시고
기간을 정하셔서
이루어 줄 날을 기다리신다.
기도한 대로 얻는다.
기도한 대로 받는다.
고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섭리 2세들은 기도해야 된다.

너희 부모에게도 당부한다.
너희가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한다.
성경에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인물들을 보아라.
하나님께 쓰이고
역사에 써져 기록되지 않았느냐.
너희의 아이가
그런 입장이다.
부모의 기도가 절실하다.
그러니 본을 보이고
새벽기도 하고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섭리 부모들에게 당부한다.
아이에게 선생을
잘 소개시켜 주어라.

자신을 구원하는 자이며
영원까지 함께할 자로
오해치 않게 잘 소개시켜 줘야 한다.
현재 그것이 잘 안 되어
시험 들어 있는데 말하지 않고
사고가 다른 쪽으로
휩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생명을 전도할 때
선생을 어떻게 소개시켜 주느냐에 따라
생명의 운명과 영원한 길까지 좌우되듯
너희의 아이들도 그러하다.
선생을 어떻게 소개시켜 주느냐에 따라
섭리에서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것은 부모의 역할이니
너희가 연구하고 노력하여라.
선생에게도 물어보고
나에게도 물어봐라.
먼저 부모의 사상이 정확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니
너희는 선생을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섭리의 2세대들은
나 성자가 늘 불꽃같이 쳐다보고 있는
최상등급 과일과 같다.
태생이 다르니 기대하고
열매를 크게 맺기를 원한다.
그런 자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성자다.
태초부터 하늘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자들을
잘 키워 주어라.
너희 육으로 키우지만
실상 나 성자가 키우는 것이니
너희 육을 빌린 값으로
100배나 더 주고
1000배나 더 갚아 준다.
아이가 말 안 듣는다 힘들어하지 말고
섭리 안에서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지 말자.
내가 듣고 다 해결해 줄 테니
선생에게도 고하고
내게도 기도하자.
너무 중요한 섭리 2세대이다.
섭리가 우주 세계의 핵심이니
그중에서도 타고난 혈통

핵심의 핵심인 자들이다.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교육하자.
교육하는 자는
나 성자와 선생이나
눈앞에 보이는 자는
부모이니 본을 보여라.
교육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안녕.